

완도 보길도·노화도 생활용수 확보 비상

겨울 가뭄에 저수율 12.5%... 오늘부터 2일 급수·10일 단수

완도군 보길도와 노화도에 비가 내리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완도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완도군 평균 강우량은 808mm로 평년 강우량의 59.4% 수준에 그쳤다.

노화도와 보길도의 강우량은 710mm로 완도군 전체 평균보다 낮다.

이에 따라 주민 8000여 명의 식수원인 보길 부항수원지 저수율도 제한 급수 기준인 30%에 훨씬 못 미치는 12.5%에 머물러 있다.

완도군은 이에따라 2일부터 제한급수 3단계인 2일 급수·10일 단수를 할 계획이다.

노화·보길 지역의 경우 지난 9월 13일부

터 제한급수 1단계인 2일 급수·6일 단수에 들어갔고 지난 10월 12부터는 제한급수 2단계인 2일 급수·8일 단수를 실시중이다.

완도군은 또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관정 개발 등 보조 취수원을 확보하는 한편 해군 제3함대의 협조를 받아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완도군은 지난 8월 가뭄대책 예비

비로 4억7000만원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해 보길도 부항전에 보조 취수원 4개소를 열어 매달 2만5000t을 공급하고 있다.

해군 제3함대사령부도 8월 군수지원정으로 생활용수 1400t을 육지에서 보길수원지로 운반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8월부터 매주 생수 3만2700병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개장 두달만에 관람객 1만명 돌파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일 고흥군에 따르면 분청사기문화박물관이 문을 연 지 두 달 만에 관람객 1만명을 돌파했다.

분청문화박물관은 지난 10월 말 지상 3층(연면적 9723㎡) 규모로 5개의 전시실에 1200여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측은 지난 25일 1만명째 관람객에게 '행운상'을 전달하고 9999번째 관람객, 1만 1번째 관람객에게는 '아차상'과 분청사기 기념품을 제공했다.

한편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복합 문화공간으로써 유물 보존과 전시 등을 통해 고흥의 분청사기와 역사·문화를 알리고 있으며 개관을 기념, 국내 최초 발견 운석으로 관심을 끌었던 '두원 운석'을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 전시실에 전시 중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향일암 일출 인파 1일 새벽, 일출 명소인 여수 돌산 향일암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천명이 찾아 바다를 붉게 물들이며 솟아오르는 일출을 보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여수시 제공>

곡성군 특산물 백세미 경쟁력 키운다

품종 다양화·선물세트 개발 등 소비자 입맛 사로잡기

곡성군이 특산물인 백세미 경쟁력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1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친환경 명품 쌀로 인정받은 곡성군 석곡농협의 '백세미' 품종 다양화 등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백세미는 곡성 석곡농협에서 누룽지향으로 특허를 받은 쌀로, 지난 2016년 쌀값 폭락에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가보다 6000원을 더 받는 등 농가의 소중한 소득원으로 자리 잡았다.

군은 새해 설 명절을 앞두고 잡곡세트(수퍼자미(검정), 흥미, 콩, 찹쌀, 현미, 수수, 조)를 개발, 현재 선물세트(6·8·10kg)와 함께 선보여 소비자들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군은 또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측면에서 기능성쌀 등 품종을 다양화하는 한편,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백일과 돌, 결혼 등 기념일에 선물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군은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백세미 전용 육묘장에서 공동 생산된 우량 육묘를 계약 재배 농가에 공급하는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도정시설은 HACCP시설 구축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백세미를 생산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측은 2017년에는 계약재배 면적을 157ha로 확대해 1000여t을 매입했으며 올해는 계약재배 면적을 2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세미는 어른들에게는 누룽지향, 어린이들에게는 팝콘향으로 입맛을 사로잡았지만, 판매가가 1kg당 5000원에 달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 단점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백세미가 곡성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잡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중앙병원 '전남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선정

24시간 원스톱 진료 위해 전문의·의료진 충원키로

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의 '전남권역별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기관으로 선정됐다.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했을 때 지역 어디서나 3시간 내에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도서지역 등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 등으로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목포중앙병원은 심뇌혈관질환자 24시간 '원스톱' 진료를 위해 순환기내과, 신경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7명과 의료진 40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중앙병원 이승택 원장은 "'전남권역별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만큼 심뇌혈관질환 발생 예방과 조기 진단, 응급 진료, 재활 등 전문적인 심뇌혈관질환 집중 치료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는 시설·장비 설치비(15억) 및 5년간 운영비(매년 9억) 등 6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친절 공무원' 선정돼 받은 포상금 성금 기탁 '훈훈'

완도군 공무원 양응열씨

50대 공무원이 '베스트 스마일 친절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돼 받은 포상금에 자비를 보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양응열(57·사진) 완도군 해양수산정책담당. 양 담당은 최근 '2017 베스트 스마일 친절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 받은 상금 50만원에 자비로 50만원을 더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이사장 오성웅)에 전달했다.

특히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으로 연말 기부 문화가 위축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 이뤄진 나눔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 담당은 지난 1981년 수산직 공채로



공직에 입문, 지난 36년간 수산 분야에서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개발에 힘써왔다. 그는 특히 수산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도 연안 바다로 유입되는 담수호 수질과 플랑크톤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를 펼쳐 석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양 담당은 지역 어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역민들 눈높이에 맞는 수산 행정을 펼친 점이 인정됐다.

양응열 담당은 "지역민들을 돕는 공무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을 비롯, 지역 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주민 갈등 스스로 풀게 군민배심원제 운영

고흥군, 판정관·예비배심원단 등 44명에 위촉장

강제력 없어 또 다른 갈등 우려도

고흥군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돕는 군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

일각에서는 군민 배심원의 결정이 실질적인 강제력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자칫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8일 고흥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판정관, 부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 예비배심원단 등 4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군민배심원제는 주민 간 갈등과 이견이 발생하면 양측 협의를 거쳐 중립적 위치의

배심원들에게 안건을 넘기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 개발 사업을 두고 최근 주민 사이에서 소송이 남발되는 등 갈등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고자 제도를 도입했다.

판정관에는 법무법인 공감 이옥형 변호사, 부판정관은 고흥군 새마을협의회 김주식 회장이 맡았다. 배심원 임기는 2년이다.

고흥군은 군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모와 추천을 거쳐 예비배심원단을 모집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이 참여하는 갈등 중개 또는 해소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 세 일 글

"현장 중심 치안행정 적극 펼칠 것"

김 현 식 구례경찰서장



"동네 구석구석을 살피고 현장 중심의 치안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김현식 신임 구례경찰서장은 최근 취임식을 갖고 "구례 군민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현장에서 자존과 인격을 존중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서장은 강진 출신으로 지난

1988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한 뒤 순천서 정보 보안과장, 목포서 여성청소년과장, 광주청 정보화장비과장 등을 지냈다.

/구례=이진택기자 ijt@

경기도 양평, 여수 거문도, 전원주택토지 투자 하실분!

문의.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010-3605-5000